

## 2013년 국제 곡물가격 전망

2013년 상반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미산 수확 물량에 따른 공급 우려 해소와 남미 국가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공급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반기 남미의 수확이 지연되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생산량이 나올 경우, 내년도 미국의 가뭄 상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급등세가 연출될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한편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제한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1. 2012년도 주요 곡물가격 요약

2011년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종료 및 그리스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면서 곡물 선물가격은 주요지지대가 붕괴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텍사스의 가뭄 심화 등 날씨 변수에 따른 수급 우려가 추가 하락이 제한받는 모습을 보인다. 잇따른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나오면서 2011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곡물 가격은 연말 남미 국가들의 날씨 변수(가뭄심화)와 더불어 2012년 들어 미국의 역대 최악의 가뭄이 이슈화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급등장세를 연출하였다.

2012년 옥수수와 대두의 파종 면적은 파종에 우호적인 날씨 상황으로 이른 파종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은 9,640만 에이커로 1937년 기록한 9,720만 에이커 파종 이래 75년 만에 최대수준(역대 최고치)으로 발표되었으며 대두 파종면적 역시 7,610만 에이커(역대 세번째로 높은 파종면적)로 발표되었다. 반면 미국 봄밀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하여 3% 감소한 1,200만 에이

\* 작성: (주)외환선물 한성민 차장(sun@kebf.com)

커로 발표되었다. 이는 밀의 경우 세계적으로 재고상황이 여유있는 편이라 미산 밀이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올 봄 이른 기온 상승으로 옥수수 파종에 매우 적합한 여건을 만들면서 옥수수 파종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많은 지역에서 봄밀 대신 옥수수가 파종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2012년 미 옥수수의 경우 파종면적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최근 10년 내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기존 타이트한 구곡 재고 상황 때문에 차후 재고량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었으며, 결정적으로 1956년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대두와 옥수수 생산량 하향조정으로 인해 곡물가격은 급등세로 전환되었고 8월 말 전후로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였다. 미국 FOMC의 3차 양적완화 단행도 곡물가격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3분기 수확 시즌에 들어서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의 경작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단기 급등 이후 일부 조정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 2012 US Principal Crop Acre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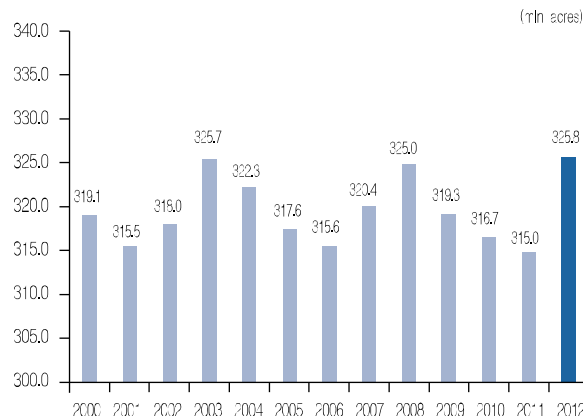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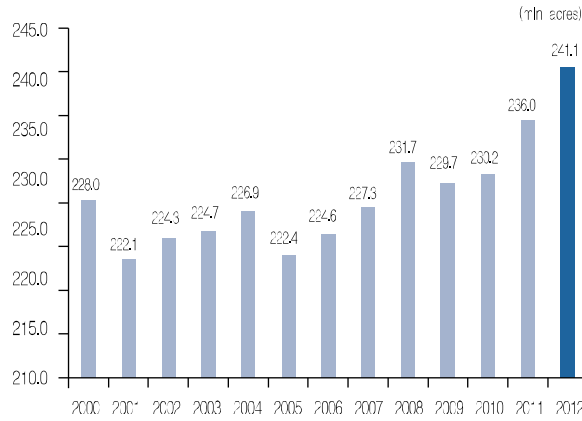


그림 2. 2012 Projecting Record 4-Crop Planted Acreage



## 2. 2013년 주요 곡물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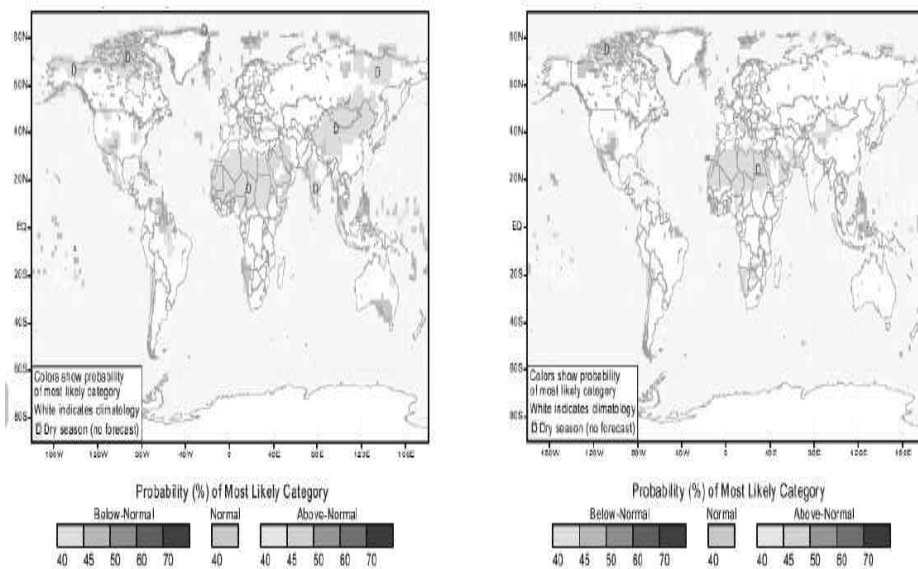
2013년 상반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은 미산 수확물량에 따른 공급우려 해소와 남미 국가들의 파종면적 및 생산량 증가 전망에 따른 공급 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재고 수준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기본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한 하방 경직성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상반기 남미의 수확이 지연되거나 예상에 못 미치는 생산량이 나올 경우, 내년도 미국의 가뭄 상황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격 급등세가 연출될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한편 흑해, 호주, 아르헨티나 밀 생산량에 대한 불확실성과 수출 제한 조치 우려는 한동안 밀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12/13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8억 4,909만 톤으로 전년도 8억 8,175만 톤에 비해 약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기말재고율 역시 13.6%에 그치며 전년도(11/12년도)14.9%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글로벌 수급 우려는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최악의 가뭄을 겪은 이후 현재 USDA가 예측하고 있는 미산 옥수수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122.3부셸 수준으로 지난 95/96년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시장 예상보다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지만 미국 옥수수 생산량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한편 파종면적 증가로 긍정적인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살펴보면 최근 아르헨티

나 옥수수 파종기간 중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 발생으로 인한 파종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브라질 역시 대두와 옥수수 파종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단수 감소 및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 우려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남미 옥수수 파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작 면적은 전년대비 약 6%,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 예상치는 12/13년도 파종면적인 9,690만 에이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미국 옥수수 기말재고율은 전년도 7.9%보다 감소한 5.8% 수준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15%의 에탄올이 포함된 연료(E15) 구매안을 지지하면서 2013년도 에탄올용 옥수수 수요량은 전년도 3억 4700만 부셸보다 상승한 5억 부셸 수준으로 미국 가솔린 수요 둔화와 에탄올 수요 증가 둔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옥수수 소비 감소가 차후 상반기 옥수수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 Corn Belt 지역의 토양수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파종시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날씨 변수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에 가장 큰 가격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2013년 1월~3월/3월~6월 세계 강수량 전망



12/13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 전망치는 2억 6,760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대두 생산국들의 생산 증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내년도 상반기 대두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9월 USDA의 미국 대두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35.3부셸로 전망하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후 콘벨트 동부를 중심으로 내린 비가 기뭇해 같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 최근 단수 전망치는 에이커당 39.3 부셸 수준까지 개선되면서 대두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대두 파종 지연과 더불어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 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공급 우려는 여전히 대두 가격의 지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며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에 따른 대두 수요 증가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1/12년도 남미산 대두 생산량 감소로 미산 대두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 대두 기말재고율은 4.5%까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한 미산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일부 수입국가들의 수입물량이 남미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올해 대두가격이 역대 최고수준을 경신하는 등 강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내년도 미국 대두 파종면적 역시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되며 13/14년도 미국 대두 파종면적은 7,900만 에이커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대두 소비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실제 미국 대두 재고율은 4.5~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종면적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생산 전망과 전년도와 같은 기상이변이 없는 한 남미 대두 생산량 역시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으나 하락폭은 제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미국 옥수수 파종면적 예상치는 12/13년도 파종면적인 9,690만 에이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13년도 세계 밀 생산량 전망치는 6억 5,143만 톤으로 전년대비 약 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호주의 밀 생산량 전망치가 전년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밀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도 5,623만 톤보다 급감한 3,800만 톤, 우크라이나 역시 전년도 2,212만 톤보다 급감한 1,55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호주의 밀 생산량 전망치 역시 엘니노 영향으로 전년도 2,992만 톤보다 하회한 2,2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국가별로 생산량 감소율(%)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이 각각 -32%, -31%, -30%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호주와 아르헨티나가 각각 전년대비 -19%, -4%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세계 밀 기말재고율은 26.3%로 전년도 28%와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수준으로 예상된

다. 호주 서부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추가적인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월에 발표된 USDA의 수급보고서상 호주 밀 생산량 전망치는 ABARES의 전망치보다 100만 톤 감소한 수준이었다. 다만 12/13년도 미국 밀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대비 약 13.5% 증가한 6,17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공급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국들의 수입 동향은 최근 흑해산 밀에서 미산 밀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미산 밀 기말재고율은 28.9%를 유지하며, 최근 10년 평균보다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2012년 12월~2013년 3월 강우량 및 기온 전망

